

第一分野(文學)

退溪先生의 文學

發表者 李 家 源(延世大 教授)

〈概 要〉

退溪文學의 全般的 研究는 참으로 龐大·浩汗한 課題이다. 이에서는 먼저 그 〈韓國의인 純粹한 詩歌文學〉으로서 〈短歌〉(俗稱時調)와 〈歌辭〉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요, 다음에는 〈漢文學〉으로서 〈詩〉·〈詞〉에 대하여 그 代表的이라 생각되는 作品만을 뽑아서 다루었다.

실은 退溪의 學問에 있어서 가장 淵深하고도 崇高한 것은 伏羲의 數理와 孔子의 綱常을 위주로 한 性理哲學이 그 大者를 占有하였음은 물론이겠지마는 文學에 있어서도 그 純正·高妙의 경지에 도달한 道文一致의 文章이 그 다음의 順位를 차지하였음이 사실이다.

退溪의 文學思想 내지 見解는 멀리 孔子에게 淵源하여 〈溫柔敦厚〉의 儒家詩教를 固守하여 〈修辭立誠〉의인 作品을 產生하였고, 또 후세의 陶潛·杜甫·歐陽脩·蘇軾 등의 長點을 參用한 바 없지 않았으나, 그 실에 있어서는 宋儒의 이른바 〈文以載道〉의인 見解에 違背됨이 없이 居然히 獨自性을 지닌 一家를 完成하였다.

또 退溪는 하나의 創作家에 그친 것이 아니라, 文學에 대하여 瞻富한 理論과 明覈한 藻鑑의 眼目を 갖춘 批評家이다. 이제 退溪의 文學에 대하여 大局的인 見地에서 구태여 韓·漢의 區別을 지을 것이 없겠으나, 다만 民族自主的인 意識에 있어서 이미 退溪 自體로부터 先韓·後漢의 概念의 畧을 띄어 놓았던 것이다. 이는 그 《陶山十二曲跋》을 吟味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I. 序

退溪는 실로 文學家이기 보다 哲學家이다. 우리 나라의 儒學 곧 性理學을 集成하여 이미 悠久 四世紀 동안을 이 땅, 이 겨레의 추앙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退溪는 文學에 있어서도 하나의 大家이다. 이는 退溪의 直前に 있어서 道學과 詞章의 兩派가 對立되어 道學派에서 詞章을 賤視 하던 時潮가 汪洋하였음에 比하여 退溪는 그와 달리 道文一致의 學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退溪는 일찌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다.

先生嘗曰：「辭達意而已，然學者不可不解文章，若不解文章，雖粗知文學，未能達意於言辭。」(『退溪言行錄』李德弘)

이는 곧 <文學을 알지 못하는 學者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見解는 실로 退溪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儒家의 元祖 孔子의 提示와 論定에서 淵源한 것이다. 孔子는 이미 《論語》중에서 이른바 <四科>를 設定하여 文學을 엄연히 德行·言語·政事와 함께 어깨를 겨누게 하였고, 또 《易經》에서 주장한 <修辭立其誠>이나, 《左傳》에 기록된 <言之無文，行之不遠>등은 모두 그러한 宗旨를 明示한 것이다.

退溪는 이와 같이 文學에 대하여 正統的인 思想을 이어받아 그 創作品이 이미 높고 깊고 맑으며, 平易하고 坦白하고 純粹한 경지에 이르렀고, 또 瞻富한 理論과 明瞭한 批評의 藻鑒을 갖추어 지닌 동시에 先風人의 끼친 遺産을 올바르게 研究·評價하여 後學에게 밝은 길을 啓示한 바 있었던 것이다.

이제 退溪文學의 全般에 대하여 여러 角度로 研究하여야 하겠지마는 대체로 創作과 批評의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요, 또 創作에 있어서 純粹한 民族文學的인 見地에서 韓·漢渾綴의 詩歌와, 純漢綴로 된 漢文學의 둘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II. 韓國的인 純粹한 詩歌文學

退溪의 文學에 대해서는 물론 大局的인 見地에서 論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태어 韓·漢의 區別을 지을 것은 없겠지마는, 다만 民族自主的인 意識에 있어서 先韓·後漢의 順序를 이제 새로이 設定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서는 특히 《退溪文集》을 엮을 當時 先輩들이 우리 正音文字를 賤視하여 《陶山十二曲》에 대한 그 지은 動機와 正義를 밝히기 위하여 붙인 〈跋〉은 수록되었으나, 도리어 그 原典을 刪棄하는 그 非理論的인 選法을 止揚하고 곧 純粹한 우리 文學을 먼저 다루기로 하였다.

1. 短 歌

이 短歌는 곧 세속에서 이른바 〈時調〉였다. 退溪의 短歌는 《陶山十二曲》에다 《清涼山歌》를 합하면 모두 十三曲이다.

《陶山十二曲》은 退溪의 遺墨으로서 陶山書院 木版本이 이제까지 傳해 온다. 이 十二曲을 前六曲·後六曲으로 나누어 前六曲 中에는 〈志〉를 달하였고, 後六曲에서는 〈學〉을 달하였다. 이제 그 每曲에 대하여 含蓄된 大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 | | |
|--------|--------|
| 〈前六曲〉 | 〈後六曲〉 |
| ㉠ 仕學殊道 | ㉡ 萬卷生涯 |
| ㉢ 聖代無過 | ㉣ 耳目聰明 |
| ㉤ 勿欺英才 | ㉥ 古道今行 |
| ㉦ 所思美人 | ㉦ 莫作他想 |
| ㉧ 懷我良友 | ㉧ 萬古常青 |
| ㉨ 欣賞道妙 | ㉨ 聖愚之間 |

우리의 時調는 흔히들 風雪과 花草 만을 읊은 浪漫的인요, 頹廢的인 調子로서 거의 千篇이 一律로 되었음에 比하여 이에서는 〈志〉와 〈學〉을 향하여 비상히 積極性을 띄운 것이 가장 特色이었다.

이 《陶山十二曲》은 版本으로서도 그다지 많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 특히 嶺南의 文人·學者와 閨房女士의 傳寫에 의하여 가위 家諭·戶誦이었고, 심지어는 街童·牧叟에 이르기까지도 愛誦되었던 것이다. 또 李朝 後半期에 있어서 通國적으로 수 많은 詩唱家의 입에 오르기도 하였거니와, 어떤 詩歌採輯家의 〈歌曲集〉이나 〈歌謠集〉 중에 수록되지 않음이 없었다.

또 退溪는 本曲에 대하여 지은 動機와 正義를 밝혀 스스로 상세한 解題인 《陶山十二曲跋》을 남기었다. 여느 著籍을 기다리지 않아서 넉넉히 本身에 의하여 解決을 짓게 되었다. 이에서 東方詩學의 源流와 儒家詩教의 主潮의 흐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여러가지의 眞諦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東方의 詩는 실로 멀리 《詩經》三百篇에서 起因되었다. 退溪의 詩學 역시 이에서 淵源하여 儒家의 傳統的인 詩教를 굳게 지켜 왔으므로 이에서도 특히 〈溫柔敦厚〉로써 詩의 正軌의인 作風을 삼았던 것이다. 이는 詩에 있어서 가장 嚴格히 밝혀야 할 것은 곧 雅·淫의 辨이기 때문이다.

退溪는 또 이 〈跋〉에서 특히 唱과 國綴의 必要性을 강조하였다. 실로 우리의 曲이나 歌辭는 漢詩와 근본적으로 달라서 吟이 아닌 唱이 필요함과, 또 唱을 하려면 반드시 韓綴이어야 함을 밝히었다.

退溪는 또 이에서 唱의 效果的인 것을 밝히어 唱者인 兒輩와 聽者인 長老의 同樂에서 이룩되는 家庭이나 社會의 融和에 관한 역할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退溪는 本曲의 발표에 대하여 惹起鬧端의 憂慮를 지니기도 하였다. 이는 실로 當時의 文學界에서는 燕山君 때의 이른바 〈諺文獄事〉의 瘡痕이 오히려 가시지 못하였던만큼 혹이나 鬧端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하는 謹慎에서 나온 心境이었다.

그 다음에는 《清涼山歌》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清涼山歌》는 실로 《陶山十二曲》 이후에 있어서 唯一의 作品이다.

退溪는 漢詩에 있어서 《詩經》의 〈溫柔敦厚〉를 基調로 하여 陶潛과 杜甫의 文學의 思想을 參用하였다. 이 《清涼山歌》는 곧 陶潛의 《桃花源記》의 故事를 援用하였다. 이는 그 文學思想에 同調함도 있거니와,

退溪先生の文學

爲學의 姿勢 역시 恰似한 點이 있었던 것이며, 또 《桃花源記》에는 한
갓 仙佛學的인 厭世主義와는 달리 民不聊生하여 다만 理想的인 樂園
을 연모하는 《碩鼠》의 遺義를 지닌 것이었다.

2. 歌 辭

退溪의 歌辭는 《孔子闕里歌》를 비롯하여 《還山別曲》·《相杵歌》·
《牧童歌》·《樂貧歌》 등의 五篇이 세상에 傳하고 있다. 《孔子闕里歌》
는 學問의 世界를 各種의 建物에 비유하여 俗客·騷士들의 놀이터로
이용되는 樓臺·亭閣도 있거니와, 人類의 文明을 위하여 萬代의 功績
을 닦은 倫理·道義의 鄉에 높고 넓고 밝은 宮牆을 건설한 儒聖 孔子
의 闕里가 가장 아름다움을 禮讚한 것이었고, 《還山別曲》은 《歸去來
兮辭》의 遺響을 지니었고, 《相杵歌》는 重農思想에 의한 春歌로서 李
紳 《閔農》의 遺義를 지녔으며, 《牧童問答歌》는 그 〈問歌〉에서는 儒家
思想을 나타내었고, 〈答歌〉에서는 寓諷의 뜻을 지녔으며, 다만 《樂貧
歌》는 아직 명확한 攷據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 이에서 《漁父辭》의 改定에 대하여 言及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이는 退溪와 龔巖 李賢輔와의 往復文學에서 나타난 사실이었다.

Ⅲ. 漢 文 學

退溪의 漢詩文은 실로 卷帙이 방대하여 이에서 이루 다 들 수 없겠
고, 다만 몇 가지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退溪의 詩는 陶·杜·歐
·蘇의 四家를 숭상하였으나, 끝내 〈溫柔敦厚〉의 儒家的 嫡訣을 固守
하였다.

退溪는 少時에 이미 《野池》의 詩를 읊어 天理의 流行하는 즈음에 人
欲이 해치는 그 경지를 더듬었다.

露草天天繞水涯。	小塘清活淨無沙。
雲飛鳥過元相管，	只怕時時燕蹴波。

또 《步自溪上踰山至書堂》의 一絶에서는 〈上下同流，各得其所〉의 妙

境을 諦得하였다.

花發巖崖春寂寂,	鳥鳴澗樹水潺潺。
偶從山後携童冠,	閒到山前問考槃。

위의 二絶은 모두 理學의 純正・高妙한 경지를 잘 形容한 作品이었고, 다음의 《紅桃花下寄金季珍二首》의 其二는 실로 芳馨・非惻한 調子로서 가히 〈靡細不撫〉라 이를 수 있을 것이다.

晚雨廉纖鳥韻悲。	千花無語浪辭枝。
何人一笛吹春怨？	芳草天涯無恨思。

退溪는 특히 梅花詩에 많은 心力을 驅使하여 晩年에 별도로 《梅花詩帖》을 手筆로 남겼거니와, 《再訪陶山梅十絶》중의 第八絶은 纖艶하기 짝이 없었다.

一花繞背尚堪猜。	胡奈垂垂盡倒開？
賴是我從花下看,	昂頭一一見心來。

그러나, 이들은 모두 짧은 律絶에 지나지 않는다. 韻律에 가장 不自由한 四律에 이르러서도 《四月既望濯纓泛月》과 같은 작품은 그 義理의 眞境은 姑舍하고라도 가벼운 바람이 맑은 波瀾을 일으키게 되었다.

水月蒼蒼夜氣清。	風吹一葉泝空明。
匏尊白酒翻銀酌,	桂棹流光掣玉橫。
采石顛狂非得意,	落星占弄最關情。
不知百歲通泉感,	更有何人續正聲？

또 《題林士遂關西行錄後二首》에 이르러서는 〈句句마다飛動・俊爽〉하다는 星湖 李瀼의 定評은 足히 松溪 權應仁의 〈澹薄風月〉의 評을 깨치었다.

擘闔奇謀漢子房。	當年曾受石公方。
未翻巢窟龍庭界,	先作干城鏃海疆。
絕域病攻天拂亂,	荒城雷鬪鬼驚忙。
豪吟白首凌雲氣,	妨句何妨鐵石腸。
狂胡射月遼東塞,	壯士搜兵樂浪墟。
指顧威靈驅虎豹,	風流談笑發詩書。

退溪先生の文學

海航病得龍王藥，
唾手功名歸燕頤。

江閣吟窺帝子居。
太平容我老漁樵。

喬山 許筠은 특히 《湖堂曉起用東坡宣惠院月夜偶出韻》·《湖堂梅花暮春始開用東坡韻二首》를 評하여 〈非惟理學，詩亦壓倒諸公〉이라 하였다. 이들에게 앞서 退溪의 知舊인 河西 金麟厚는 〈夫子嶺之秀，李杜文章王趙筆〉이라는 二句의 極讚이 있었던 것이다.

또 退溪의 《和松岡樂府三篇》은 실로 益齋 李齊賢의 이후와, 蘭雪 許楚姬의 이전에 있어서의 名作이 아닐 수 없다. 本詞는 《武陵春》，《憶秦娥》，《點絳脣》 등으로 되었다.

屋角鳩鳴春雨細，起晚倚窓梳。滿月煙花一萬重。好是幾番風？陣陣吹紅香不斷，庭院正薰濃。惆悵閒吟望遠空。淡淡日斜紅。

Ⅳ. 結

退溪文學의 全般的 研究는 참으로 龐大·浩汗한 課題이다. 이에 列擧한 것은 하나의 概要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서는 먼저 그 〈韓國의인 純粹한 詩歌文學〉으로서 〈短歌〉·〈歌辭〉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고, 다음에는 〈漢文學〉으로서 〈詩〉·〈詞〉에 대하여 그 代表的 作品 만을 뽑아서 論及하였다.

실로 退溪의 學問에 있어서 가장 淵深·崇高한 것은 釋休靜의 이론마 〈伏羲數理三才主，孔子綱常萬世師〉와 같이 數理와 綱常이 그 大者를 占有하였음은 물론이었으나, 文學에 있어서도 그 道文一致의 純正·高妙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는 실로 孔聖에게 淵源한 〈溫柔敦厚〉의 傳統的인 思想을 固守하여 〈修辭立誠〉의인 文學을 産生하였고, 또 陶·杜·歐·蘇의 長點을 參用하였으나, 그 실에 있어서 宋儒의 〈文以載道〉의인 見解에 違背됨이 없이하여 靡然히 獨特한 一家를 이룩하였던 것이다.